

행동하는 믿음 VI

말씀이 없으면 결국 금송아지를 만듭니다.

1. 금송아지 사건

[출애굽기 32:1]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미 더듬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1) 시내산 언약을 받은 사건

이스라엘의 수준이 가장 높아지는 단계이다. 말씀이 없었던 그들과 말씀으로 언약을 맺으시는 사건이다. 가장 영광스러운 단계로 나아가는 시점이다. 이들에게 주어졌던 말씀은 이들의 삶과 연결된 생활법이다. 하나님 백성의 삶의 방식이다. 이 생활 방식이 실제로 이방 나라들과의 차별을 보여준다.

(2) 금송아지 사건

이스라엘 전체를 진멸시키겠다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정도로 바닥을 치는 사건이다. 아담의 범죄에 버금가는 사건이다.

(3) 광야 - 말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는 '훈련'의 장소이다. 400년 가까이를 내 방식대로 살았던 사람들을 변화시키는 일은 쉽지 않다. 이미 굳어있는 그들의 생각과 삶의 방식을 어떻게 하루 아침에 변화시킬 수 있겠는가?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을 주신 것이다. 말씀을 주신 이유는 분명하다. 말씀대로 살라고 주신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정확하다. 다시 말해 정확히 살라고 주신 것이다. 그래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삶의 전부인 것이다. 그들의 삶 자체가 말씀인 것이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미 더듬을 보고' 모였다. 그리고 자신들을 위하여, 자신들을 인도할 신을 만들라 말한다.

(4) 금송아지를 만든 이유

모세의 내려오미 지연되었다는 것은 그들 생각에 모세가 죽었다고 생각한 것이다. 모세는 말씀을 상징한다. 모세가 말씀을 받으러 시내산에 올라간 것이다. 말씀이 그들에게 죽은 것과 같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죽었을 때, 나는 금송아지를 만들 수 있는 존재라는 사실이 충격적이다. 이 사건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난 인간이 얼마나 무익한 존재인지를 알아야 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한 인간이 결국 에덴을 떠나게 되었다. 그 후 말씀이 없는 그들의 삶이 얼마나 비참한 삶을 살게 되었는지 성경은 생생하게 오늘날 우리에게 증언한다.

2. 우상 - 금 송아지

[출애굽기 32:2-4, 8] 2 아론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의 아내와 자녀의 귀에서 금 고리를 빼어 내게로 가져오라 3 모든 백성이 그 귀에서 금 고리를 빼어 아론에게로 가져가매 4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 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하는지라

8 그들이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길을 속히 떠나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그것을 예배하며 그것에게 제물을 드리며 말하기를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신이라 하였도다

* 아론 - 예배하는 자의 타락

레위지파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이다. 놀라운 장면은 아론의 손을 통해 금송아지를 경배하는 우상이 만들어졌다는 것이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의 타락이 다른 우상을 만들어 예배하게 한다는 사실이 놀랍다. 그들의 귀에서 금 고리를 빼어 송아지 형상을 만든다. 그리고 4절의 기록처럼,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라 말한다. 무서운 장면이다. 금송아지가 애굽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한 신이라고 말한 것의 의미를 알아야 한다. 그들에게 있어서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할 수 있는 신은, 다신교 풍속의 애굽 문화 중에서도 가장 강한 신을 말한다.

(1) 바알

바알은 '주인-owner, master' 라는 뜻의 BL과 '신을 뜻하는 al' 이 합쳐진 말이다. 폭풍과 전쟁, 풍요를 담당하고 있는 신이다. 모든 신이 모셔져있는 만신전에서 가장 으뜸인 신이 '바알'이다. 동방의 점성술에서 바알 숭배는 곧 천체 숭배를 의미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바알 숭배를 태양신 숭배라 생각했다. 그리스 로마에 가서는 이를 주피터(제우스)라 불렀다. 제우스는 하늘과 천둥의 신이다. 그래서 바알을 숭배하는 장소는 언제나 그 지역에서 가장 높은 곳에 위치한다.

(2) 바알스본

[출애굽기 14:2]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돌이켜 바다와 므딤 사이의 비하히롯 앞 곧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라

[출애굽기 14:21]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출애굽 한 하이라이트가 바로 홍해 사건이다. 홍해를 건너기 전 그들은 바알을 숭배하는 바알스본 맞은편에 있었다. 그들이 홍해를 건널 수 있었던 것은, 21절의 말씀처럼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했기 때문이다.

왜 그들이 바알 우상의 상징인 금송아지를 보고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하나님이라고 했을까? 하나님이 바알을 숭배하는 가장 높은 장소인 바알스본 맞은편에서 그들을 건너가게 한 사건은, 하나님이 다신교 문화 가운데 있던 그들에게 가장 강력한 하나님이라는 증표가 된 사건이다. 모든 신 중의 신이었던 바알을 하나님의 자리에 두었던 그들의 완악함을 안다면, 금송아지를 만들어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신을 숭배한 것은 경악할 사건인 것이다. (동풍을 주관하는 신-바알)

3. 우상

(1) 우상의 정체

금송아지를 만들려면 금 불이를 녹여야 한다. 금은 귀걸이이든, 목걸이, 반지 등 형태는 달라도 금의 본질은 같다. 그런데 녹여야 내가 원하는 형상을 만들 수 있다. 내가 원하는 형상이 바로 금송아지(우상) 이다. 인간의 야망이 금을 녹여내어 자기가 원하는 형상을 만든다. 귀걸이 등 모두 다 그들에게 있었던 것이다. 금귀걸이를 차고 있었지만, 그들의 야망과 욕망은 금송아지를 원했다. 그들에게 있었던 것이 그들이 원했던 하나님을 만든 것이다. 우리도 그와 같다. 우리의 야망이 내 것을 녹여 내가 원하는 하나님을 만드는 것이다. 금송아지는 그들의 야망이 겉으로 형상화하여 드러난 것이다.

(2) 광야의 마지막 시험

광야에서 가장 강력했던 범죄는 금송아지 우상을 만든 범죄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려 간 모세를 거절한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 두기를 거절한 것이다. 왜 이 사건이 중요한가? 말씀이 없으면 가장 어려울 때 하나님의 실존에 대해서 의심한다. 광야는 하나님의 실존에 대한 훈련이다. 내면의 믿음에 대한 훈련이다. 믿는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느냐 없느냐에 대한 것이다. 이 일이 왜 중요한가? 결국 말씀이 없으면 인간은 내가 원하는 욕망의 우상을 하나님이라 여기며 숭배하는 존재이기 때문이다.

4. 나는 누구?

오늘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 있는 가장 영광스러운 존재이기도 하지만, 말씀에서 떠날 때 진멸의 심판을 불러올 우상을 만들 수 있는 존재라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두 간극 사이에 이스라엘 백성이 있다. 우리의 존재도 그와 같다. 가장 영광스러운 일을 경험할 수 있는 존재이기도 하지만, 진멸 직전의 바닥을 경험하는 존재이기도 하다. 두 간극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말씀의 중요성을 알아야 한다. 말씀에 대한 나의 자세가 달라져야 한다. 말씀 없이도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나의 교만이 부서져야 한다. 말씀이 무뎠을 때, 즉 말씀이 일상에서 삶에서 멀어졌을 우리가 어떤 존재로 변하는지 알아야 한다. 진노에 빠지는 존재라는 사실이다. 하나님의 은혜에서 떠난 광야 그 자체의 존재이다. 하나님이 없는 광야는 아무 의미없는 사막일 뿐이다. 그런 사막과 같은 인생이 되는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난 인간이 얼마나 무익한 존재인지를 알아야 한다. 에덴을 떠난 인간의 결말이 어떤지를 알아야 한다. 가장 영광스러운 일을 경험할 수 있는 존재이기도 하지만, 가장 비참한 존재가 될 수 있음을 알아야 한다.

결국 그 기준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아야 한다. 그 말씀으로 인해 광야와 같은 내 인생이 얼마나 존귀한 존재인지를 알게 되는 것이다. 말씀이 없는 모든 영역에 금송아지가 있다. 말씀을 잃은 사람은 욕망을 주조하는 존재가 된다.

* 금송아지 - 바알과 아세라 (풍요와 다산)

하나님 없는 풍요, 사랑, 선한 일 : 하나님 없는 의미를 찾으려는 고독하고 불안한 인간이다.

5. 생명의 말씀이 필요하다. 말씀에 목숨을 거는 자들이 필요하다.

[히브리서 4:12]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바닥을 치고 있는, 말씀이 없는, 진멸이 언도된 세상을 품는 진짜 말씀이 필요하다. 정확한 기도, 정확한 찬양, 정확한 메시지로 내 안의 우상을 제거해야 한다. 칼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날이 서있지 않는 칼은 무용지물이고, 짐이 될 뿐이다. 성도들의 삶이 무너져있다. 이것은 말씀대로 살지 않기 때문이다. 정확히 말씀이 요구하는 바를 삶에서 받아내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무뎠진 칼이기 때문에 싸울 수 없다.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을 수 없다. 정확한 말씀이 우리 삶에 적용되어야 한다. 말씀이 삶이 될 때, 우리 안에 있는 헛된 욕망의 우상은 말씀의 검 앞에 산산조각 날 것이다. 말씀으로 정령되어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어내는 말씀의 사람이 되자.